현 박사는 정년퇴임 때 다음과 같은 시를 후학들에게 남겼다.

“너 푸른 젊음이여! /새나라 지도자로 뽑힌 너 젊은이여! /반도강산 푸르게 하는 학문을 닦아/나의 나라 나의 겨레 번영케 하고/인류생존 복지를 북돋아 보세/하늘의 부름 받아 일어선 너 젊은이여! /저 하늘 높은 별에 네 뜻을 싣고/저 깊이 숨어 있는 그윽한 진리를/오늘도 내일도 힘을 다해 캐어 보세/역사의 부름 받아 나선 너 젊은이여! /사랑 예지 창조력을 기르고 닦아/동방의 꺼진 등대에 다시금 불을 켜서/영원한 생의 열매 맺도록 하여 보세.”